

##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송 보 경 이 주 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이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소에 입소 중인 29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한국판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자기보고용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냉담-무정서 특질, 자기애적 성격성향, 비행의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냉담-무정서 특질, 자기애적 성격성향, 비행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성이 비행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감정표현결여가 비행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냉담성은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잘 설명하였고 감정표현결여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을 잘 설명하였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비행에 대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설명력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냉담-무정서 특질, 자기애적 성격성향,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 성차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주영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136-714)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Tel: 02-940-4498 / Fax : 02-940-4490 / E-mail : jylee7694@dongduk.ac.kr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은 사회적으로 빈번해 왔다(이혜선, 2005).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은 과거에 비해 비행 방법과 강도가 성인 범죄 수준 못지않게 흉악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될만하다.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2008년보다 337% 급증하였으며 재범률도 높아져 청소년 비행이 점점 잔인한 범죄로 전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특성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행과 관련되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권은정, 2011). 청소년 비행의 개인내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 이하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CU 특질은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세 가지 측면 중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특질이다. 정신병질은 대인관계, 정서, 행동 측면에서 측정되는데 냉담하고 비정서적인 특징은 성인 정신병질을 개념화하는 중요한 특질 중 하나이다(Hare, 1993). 이러한 정신병질적 정서를 Frick(1998)은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로 개념화하였다. CU 특질은 죄책감과 후회의 결여,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 부족, 피상적인 정서 표현 등을 특징으로 한다(Frick, 2009). CU 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적 관심이나 도덕적 추론에서의 결함(Fisher & Blair, 1998; Pardini, Lochman, & Frick, 2003), 낮은 정서반응, 타인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정서적 결함을 보인다

(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Loney, Frick, Clements, Ellis, & Kerlin, 2003; Stevens, Charman, & Blair, 2001). 또한, 두려움이 결핍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자극 및 보상추구 경향성을 보이며(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orn, 1999), 처벌에 덜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Fisher & Blair, 1998; Frick et al., 1999; Pardini et al., 2003).

CU 특질이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범죄를 일으키는 성인 범죄자에게 국한되어 보고되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만 2세의 유아들에게도 CU 특질이 측정되었으며(Waller et al., 2012), CU 특질이 아동 및 청소년의 심각한 품행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Frick, Ray, Thornton과 Kahn(2013)에 따르면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중 CU 특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특히 더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U 특질이 높은 청소년들은 심각한 품행문제를 가진 다른 아동, 청소년에 비해 개인적인 이익이나 지배성을 취하기 위해 더 도구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성을 보이며(Frick et al., 2003; Kruh, Frick, & Clements, 2005; Lawing, Frick, & Cruise, 2010; Marsee, & Frick, 2007), 성인기에도 더욱 반사회적인 결과를 나타낸다(Burke, Loeber, & Lahey, 2007; McMahon, Witkiewitz, & Kotler, 2010). Frick과 Viding(2009)은 높은 CU 특질이 정상적인 양심(conscience)의 발달을 간섭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CU 특질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CU 특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권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CU 특질이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는데, 특히 CU 특질의 하위요인 중 냉담성 요인이 반사회성 성격특성과 비행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도 CU 특질이 청소년의 품행문제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Fanti, Frick, & Georgiou, 2009; Marsee, & Frick, 2007; Stickle, Kirkpatrick, & Brush, 2009; Kimonis, Frick, Muñoz, & Aucoin, 200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오승은과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CU 특질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는 많이, 방어행동은 적게 보였다. 이 연구에서 오승은과 이승연(2011)은 남녀 청소년 모두 CU 특질이 높은 경우에는 마음읽기 능력이 좋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진숙(2013)의 연구에서는 CU 특질이 높은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위협감수행동을 더 많이 하고 비행집단 내에서도 CU 특질이 높은 경우에 위협감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는 CU 특질이 비행과 같은 외현적 행동과 결합될 때 위협감수행동이 더 상승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은 일관되게 CU 특질이 청소년들의 비행 및 품행문제, 공격행동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또 다른 내적 요인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이다. CU 특질이 정신병질의 정서적 측면을 설명하는 요인이라면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정신병질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Muñoz,

Kimonis, Frick, & Aucoin, 2013).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한 지각을 반영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선행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관련될 수 있다(Barry et al., 2007). Muñoz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적 성격성향(psychopathy-linked narcissism)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단서에 과민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저조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제안하는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자기 과시, 타인 조종, 잘난 척과 속임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품행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이나 사회기술 등과는 부적으로 관련된다(Barry, Wallace, & Guelker, 2011). 한편,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연결지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한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 없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허영심, 자기중심성, 타인 이상화, 강한 시기, 거만함, 특권의식, 착취성, 내적 공허함, 무가치함, 취약성, 지나친 과민성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차타순, 2001). Kernberg(1975) 역시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만성적 지루함과 공허함,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고양감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이용, 조종 혹은 착취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현상과 원인 및 특성들은 비행 청소년들이 보이는 과다활동, 반항, 충동, 적대, 분노, 공격, 흥분, 쾌락 추구, 자기중심성, 공감 결핍 등의 특징과

유사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 성향도 강하게 나타난다(차타순, 2002). 이수정과 이해선(2006)의 연구에서는 비행유형과 자기애적 성격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절도 비행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절도 비행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취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때 이는 CU 특질의 하위요인 중 냉담성 요인과 상당 부분 공통된다. CU 특질의 냉담성 요인은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와 상호 호혜성 부족 및 냉담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는 절도, 금품갈취, 착취 등의 청소년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rry, Frick과 Killian(2003)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CU 특질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면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부적응적인 측면(예: 착취성, 특권의식 등)이 CU 특질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CU 특질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CU 특질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비행 문제를 다룰 때 성차를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들은 주로 남자의 비행을 설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행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실제로 여자 청소년의 비행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비행

경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정익중, 2005), 남녀의 비행 수준 및 비행과 관련되는 변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비행의 원인을 살펴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행의 원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노출되는 경험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성별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다르다는 입장에서는 남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성별 특수(gender specific) 이론이 있다. 비행 문제에서 남녀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Hagan(Hagan, Gillis, & Simpson, 1985; Hagan, Simpson, & Gillis, 1987)의 권력통제 이론은 성별 특수 이론을 제안하며 여자 청소년의 비행만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요인을 찾고자 했다. 가부장적 성역할 사회화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자 청소년의 비행은 낮추지만 상대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Hagan et al., 1985; Hagan et al., 1987). 또 다른 측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내면화는 사회적으로 여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여자 청소년들이 강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여 위험을 피하게도 하지만 오히려 강한 통제로 비행을 유발하게 만들기도 한다(Bursik, Merten, & Schwartz, 1985). 정익중(2005)은 여자 청소년의 비행도 남자 청소년만큼 심각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CU 특질에서도 성차가 발견된다. Essau, Sasagawa와 Frick(2006)의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CU 특질, 학교 수행, 또래 관계, 가정에서의 의무 수행 차이를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 행동평가척도(Youth Self-Report: YSR)에서 평가되는 내재화 문제와 CU 특질과의 관련성에서 남자 청소년은 불안, 우울, 위축 등을 나타내는 내재화 문제가 CU 특질 총점 및 냉담성 차원과 미비한 상관을 보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여 CU 특질과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권은정(2011)의 연구에서도 CU 특질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지만 하위요인에 따라 성차가 발견되었다. 냉담성 요인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유의한 예측력을 가졌지만 부주의 요인은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만 예측하였다. 오승은과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CU 특질이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마음읽기 능력이 좋더라도 CU 특질의 높고 낮음이 반사회적 행동을 할 것인지 친사회적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CU 특질, 자기애적 성격성향, 비행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남녀 집단에서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CU 특질의 하위요인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각각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련성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국내 연구는 없으며, 특히 비행에 대한 기질적 취약요인으로 잘 알려진 CU 특질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CU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가 규칙위반, 공격행동,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해볼 때, 높은 CU 특질은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CU 특질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행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설명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내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 대상

서울, 경기, 대전 지역의 4개 보호치료시설의 보호관찰 대상자 300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6호 처분<sup>1)</sup>을 받은 청소년들이며, 연구자와 기

1) 6호 처분. 만 19세 이하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교정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 비행 정도를 볼 때 더 이상 부모에게 교육을 맡기기 어렵고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소년범들이 6호 처분을 받는다.

표 1. 성별에 따른 죄명별 빈도 (n=295)

| 범죄유형         | 죄명        | N(%)            |                 |
|--------------|-----------|-----------------|-----------------|
|              |           | 남자              | 여자              |
| 강력범          | 특수강간      | 2(0.5)          | 2(1.0)          |
|              | 강간치사      | 1(0.2)          | 0               |
|              | 강간        | 4(0.9)          | 0               |
|              | 강도상해      | 4(0.9)          | 2(1.0)          |
|              | 준강도       | 2(0.5)          | 0               |
|              | 특수강도      | 3(0.8)          | 1(0.5)          |
|              | 강도미수      | 1(0.2)          | 0               |
|              | 방화        | 1(0.2)          | 0               |
|              | 강제추행      | 1(0.2)          | 0               |
|              | 살인미수      | 0               | 1(0.5)          |
|              | 영유아유기     | 0               | 1(0.5)          |
|              |           | <b>합계</b>       | <b>19(4.4)</b>  |
| 보호관찰         | 보호관찰위반    | 69(16.2)        | 38(19.7)        |
|              | 보호처분변경    | 4(0.9)          | 0               |
|              | <b>합계</b> | <b>73(17.1)</b> | <b>38(19.7)</b> |
| 약물<br>(유해물질) | 약물        | 3(0.7)          | 8(4.1)          |
|              | 유해물질흡입    | 9(2.1)          | 3(1.6)          |
|              | <b>합계</b> | <b>12(2.8)</b>  | <b>11(5.7)</b>  |
| 폭력범          | 공동폭행      | 2(0.5)          | 1(0.5)          |
|              | 공동상해 폭행   | 0               | 2(1.0)          |
|              | 폭행감금      | 0               | 1(0.5)          |
|              | 특수폭행      | 0               | 1(0.5)          |
|              | 폭력        | 5(1.2)          | 6(3.1)          |
|              | 집단폭행      | 2(0.5)          | 3(1.6)          |
|              | 폭행        | 41(9.5)         | 33(17.3)        |
|              | 갈취        | 7(1.6)          | 2(1.0)          |
|              | 공동상해      | 1(0.2)          | 0               |
|              | 상해        | 5(1.2)          | 1(0.5)          |
|              | 공갈        | 18(4.2)         | 5(2.6)          |
|              | 공동공갈      | 3(0.7)          | 1(0.5)          |
|              | 상습공갈      | 2(0.5)          | 0               |

|      |           |                 |                  |
|------|-----------|-----------------|------------------|
|      | 공동갈취      | 1(0.2)          | 0                |
|      | 공갈협박      | 0               | 2(1.0)           |
|      | 금품갈취      | 0               | 1(0.5)           |
|      | 협박갈취      | 0               | 1(0.5)           |
|      | <b>합계</b> | <b>87(20.3)</b> | <b>60(31.1)</b>  |
| 재산범  | 절도        | 66(15.4)        | 15(7.8)          |
|      | 절도교사      | 2(0.5)          | 0                |
|      | 특수절도 교사   | 0               | 1(0.5)           |
|      | 특수절도      | 76(17.8)        | 31(16.1)         |
|      | 특수절도미수    | 1(0.2)          | 0                |
|      | 특수장물절도    | 1(0.2)          | 0                |
|      | 여신금융법위반   | 2(0.5)          | 1(0.5)           |
|      | 공금횡령      | 1(0.2)          | 0                |
|      | 재물손괴      | 3(0.7)          | 0                |
|      | 장물취득      | 2(0.5)          | 1(0.5)           |
|      | 장물알선      | 3(0.7)          | 0                |
|      | 공동재물손괴    | 1(0.2)          | 0                |
|      | 사기        | 11(2.6)         | 11(5.7)          |
|      | 상습사기      | 0               | 1(0.5)           |
|      | 점유이탈물횡령   | 0               | 1(0.5)           |
|      |           | <b>합계</b>       | <b>169(39.5)</b> |
| 교통사범 | 뺑소니       | 2(0.5)          | 0                |
|      | 음주운전      | 1(0.2)          | 0                |
|      | 교통위반      | 30(7.0)         | 2(1.0)           |
|      | 무면허       | 16(3.7)         | 3(1.6)           |
|      | <b>합계</b> | <b>49(11.4)</b> | <b>5(2.6)</b>    |
| 기타   | 공동물건훼손    | 1(0.2)          | 0                |
|      | 공무집행방해    | 1(0.2)          | 0                |
|      | 공사문서위조    | 4(1.0)          | 2(1.1)           |
|      | 모욕        | 4(1.0)          | 0                |
|      | 불법문신기계    | 1(0.2)          | 0                |
|      | 성매매알선     | 1(0.2)          | 1(0.5)           |
|      | 주거침입      | 4(1.0)          | 1(0.5)           |

|    |           |                |                |
|----|-----------|----------------|----------------|
|    | 폰팔이       | 1(0.2)         | 0              |
|    | 학교통고      | 2(0.5)         | 0              |
|    | 가출        | 0              | 1(0.5)         |
|    | 공동감금      | 0              | 1(0.5)         |
|    | 기물파손      | 0              | 2(1.1)         |
|    | 성매매강요     | 0              | 2(1.1)         |
|    | <b>합계</b> | <b>19(4.5)</b> | <b>10(5.3)</b> |
| 전체 |           | 428(100)       | 193(100)       |

\* 죄명은 최대 3개까지 기입하도록 함

관 담당자 3-4명의 감독 하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총 300명의 연구 대상 중 설문을 제출하지 않은 4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남자 청소년 206명(69.80%)과 여자 청소년 89명(30.20%)으로 총 295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자 15.65세( $SD=1.48$ ), 여자 15.89세( $SD=1.40$ )였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총 61명이었고, 중2(6.8%)와 중3(7.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은 총 234명이었으며, 이들의 최종 학력은 각각 중2(21.0%), 중3(15.6%), 고1(20.7%), 고2(6.8%)였다. 부모의 결혼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이 140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의 죄명을 강력범, 폭력범, 보호관찰, 약물(유해물질), 재산범, 교통사범, 기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폭력범과 재산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죄명별 빈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 도구

#### 한국판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Korea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

ICU는 Frick(2004)이 청소년의 냉담하고 비정서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24문항으로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Essau 등(2006)의 타당도 연구에서 냉담성(Callous) 11문항, 부주의/무신경(Uncaring) 8문항, 감정표현결여(Unemotional) 5문항으로 하위요인이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냉담성(Callous) 10문항, 부주의/무신경(Uncaring) 9문항, 감정표현결여(Unemotional) 5문항으로 하위요인이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냉담성 .67, 부주의/무신경 .78, 감정표현결여 .66이었다.

####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Raskin과 Terry(1998)의 자기애 측정 도구, Emmons(1981)의 자기애 측정 도구, 한수정(1999)이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자기애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자아에 대한 Kohut의 개념 중 허위 자아성 개념과 동료 집단 의존성 개념을 기초로 한 광희경(1991)의 척도, 황순택(1995)이 DSM-IV의 진단 준거에 의거하여 만든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등을 참고로 하여 차타순(2001)이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차타순(2001)의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는 권위 9 문항, 착취/특권의식 7문항, 우월성 7문항, 허영성 5문항, 자기중심성 7문항,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7문항, 과장성 5문항으로 총 47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전적으로 그렇다’(7점)까지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권위 .85, 착취/특권의식 .83, 우월성 .84, 허영성 .84, 자기중심성 .76,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86, 과장성 .72였다. 단, 본 연구에서 비행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개별 하위요인 대신 총점을 활용하였다.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Report: YSR)

한국판 YSR은 새로 개정된 Youth Self-Report (Achenbach & Rescorla, 2001)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오경자, 김영아, 2010). 행동평가척도는 대상자의 사회적 적응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크게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로 나뉘어지며, 문제행동척도에 속하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증후군 소척도 8개, 기타문제와 이들 하위척도의 합으로 구성되는 상위척도인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 점수(문제행동총점)로 구성된다. 이 중 내재화 총점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척도의 합으로 구성되며, 외현화 총점은 규칙위반과 공격행동 척도의 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만 11~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자기보고용(YSR)을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문제행동 및 비행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외현화 척도에 속하는 규칙위반(15문항)과 공격행동(17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난 6개월 내에 자신이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들을 총동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위반 점수와 언어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된 공격행동 점수, 규칙위반과 공격행동 척도의 합으로 구성된 외현화 점수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외현화 .90, 규칙위반 .81, 공격행동 .87이었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녀 집단에서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녀 집단에서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1단계에 CU 특질에 해당하는 3가지 하위요인을 각

각 투입한 후, 2단계에 자기애적 성격성향 총점을 투입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먼저,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비행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표 2), 다음으로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CU 특질 중 부주의/무신경, 자

기애적 성격성향 중 허영심, 자기중심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도 여자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여자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을 보면, 남자 집단의 경우, CU 특질 중 냉담성은 외현화( $r=.15, p<.05$ )와 규칙위반( $r=.16, p<.05$ )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감정표현결여는 외현화( $r=-.17, p<.05$ ), 규칙위반( $r=-.17, p<.05$ ), 공격행동( $r=-.14, p<.05$ )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주의/무신경은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n=295)

| 측정변인             | 하위요인          | 평균(표준편차)      |               | <i>t</i> |
|------------------|---------------|---------------|---------------|----------|
|                  |               | 남(n=206)      | 여(n=89)       |          |
| 냉담-<br>무정서<br>특질 | 냉담성           | 7.52(3.83)    | 6.61(3.85)    | 1.89     |
|                  | 부주의/무신경       | 11.28(4.47)   | 12.62(4.52)   | -2.36*   |
|                  | 감정표현결여        | 7.45(3.02)    | 7.34(3.01)    | -.29     |
|                  | 총점            | 26.25(7.31)   | 26.56(6.98)   | -.34     |
| 자기애적<br>성격성향     | 권위            | 31.32(11.23)  | 29.99(10.52)  | .95      |
|                  | 착취/특권의식       | 21.09(20.81)  | 8.65(8.16)    | .26      |
|                  | 우월성           | 23.78(9.10)   | 23.43(8.49)   | .31      |
|                  | 허영심           | 17.59(7.54)   | 22.09(7.05)   | -4.79*** |
|                  | 자기중심성         | 25.02(8.68)   | 27.98(8.21)   | -2.72**  |
|                  |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 26.01(9.67)   | 28.38(9.50)   | -1.94    |
|                  | 과장성           | 16.66(5.96)   | 15.55(5.84)   | 1.48     |
| 비행               | 총점            | 161.47(49.37) | 168.22(44.97) | -1.11    |
|                  | 외현화           | 25.67(9.99)   | 30.81(9.98)   | -4.05*** |
|                  | 규칙위반          | 13.54(4.93)   | 15.71(5.19)   | -3.41**  |
|                  | 공격행동          | 12.13(6.21)   | 15.10(5.80)   | -3.84*** |

\* $p<.05$ , \*\* $p<.01$ , \*\*\* $p<.001$

표 3. 냉담-무정서 특질, 자기애적 성격성향, 비행간의 상관관계 (n=295)

| 측정변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냉담성           | -     | .15    | -.08   | .30** | .50** | .02    | .08    | .15   | .08    | .09    | .26*  | .24*  | .24*  |
| 2 부주의/무신경       | .05   | -      | .03    | .08   | .16   | -.34** | -.11   | .01   | -.21** | -.29** | .07   | -.03  | .15   |
| 3 감정표현 결여       | .10   | .22**  | -      | -.25* | -.30* | -.35** | -.32** | -.12  | -.14   | -.26*  | -.19  | -.23* | -.13  |
| 4 권위            | .15*  | -.15*  | -.07   | -     | .79** | .43**  | .52**  | .43** | .78**  | .49**  | .46** | .41** | .43** |
| 5 착취/특권의식       | .37** | -.01   | -.05   | .69** | -     | .45**  | .46**  | .50** | .65**  | .53**  | .56** | .50** | .51** |
| 6 우월성           | .10   | -.36** | -.29** | .56** | .53** | -      | .54**  | .27*  | .51**  | .83**  | .29** | .35** | .18   |
| 7 허영심           | .06   | -.33** | -.23** | .57** | .53** | .78**  | -      | .47** | .59**  | .45**  | .47** | .49** | .36** |
| 8 자기중심성         | .24** | -.03   | .02    | .64** | .60** | .33**  | .41**  | -     | .57**  | .32**  | .57** | .37** | .64** |
| 9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 .04   | -.30** | -.08   | .74** | .62** | .67**  | .70**  | .60** | -      | .56**  | .53** | .48** | .48** |
| 10 과장성          | .19** | -.38** | -.18** | .51** | .59** | .79**  | .67**  | .40** | .60**  | -      | .42** | .42** | .34** |
| 11 외현화          | .15*  | .05    | -.17*  | .45** | .46** | .22**  | .28**  | .58** | .34**  | .22**  | -     | .90** | .92** |
| 12 규칙위반         | .16*  | .06    | -.17*  | .33** | .39** | .19**  | .21**  | .45** | .22**  | .20**  | .87** | -     | .65** |
| 13 공격행동         | .11   | .03    | -.14*  | .46** | .43** | .20**  | .29**  | .58** | .37**  | .20**  | .92** | .60** | -     |

\*  $p < .05$ , \*\*  $p < .01$ , \*\*\*  $p < .001$ : 대각선 위는 여자, 아래는 남자

의 경우 모든 하위척도에서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과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자 집단에서는 CU 특질 중 냉담성이 외현화( $r = .26, p < .05$ ), 규칙위반( $r = .24, p < .05$ ), 공격행동( $r = .24, p < .05$ )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감정표현결여는 규칙위반( $r = -.23, p < .05$ )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주의/무신경은 남자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 집단에서도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는 우월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과의 상관성이 유의미하였다.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간의 상관에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냉담성이 권위 및

착취/특권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주의/무신경과 감정표현결여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대체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CU 특질의 각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추가적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대한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설

명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남녀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부주의/무신경을 투입한 경우, 남녀 집단 모두에서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2단계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설명력만이 유의하였다. 아래에는 CU 특질의 하위요인 중 비

행을 유의하게 설명한 냉담성과 감정표현결여를 각각 1단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 자기애적 성격성향 총점을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냉담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4와 표 5를 보면, 남녀 집단 모두에서

표 4. 외현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 1단계  |      |            | 2단계  |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 남자(n=206) |      |      |            |      |      |                                   |
| 냉담성       | .389 | .184 | .149*      | .157 | .166 | .060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91 | .013 | .449***                           |
|           |      |      | $R^2=.022$ |      |      | $R^2=.216, \Delta R^2=.194^{***}$ |
| 여자(n=89)  |      |      |            |      |      |                                   |
| 냉담성       | .678 | .268 | .261*      | .330 | .226 | .127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128 | .019 | .575***                           |
|           |      |      | $R^2=.068$ |      |      | $R^2=.381, \Delta R^2=.313^{***}$ |

\*  $p<.05$ , \*\*  $p<.01$ , \*\*\*  $p<.001$

표 5. 규칙위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 1단계   |      |            | 2단계  |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 남자(n=206) |       |      |            |      |      |                                   |
| 냉담성       | .208. | .089 | .161*      | .122 | .086 | .095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34 | .007 | .336***                           |
|           |       |      | $R^2=.026$ |      |      | $R^2=.135, \Delta R^2=.109^{***}$ |
| 여자(n=89)  |       |      |            |      |      |                                   |
| 냉담성       | .322  | .140 | .239*      | .157 | .124 | .116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61 | .011 | .525***                           |
|           |       |      | $R^2=.057$ |      |      | $R^2=.317, \Delta R^2=.261^{***}$ |

\*  $p<.05$ , \*\*  $p<.01$ , \*\*\*  $p<.001$

냉담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외현화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표 4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할수록 외현화 행동이 증가하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또한 추가적으로 외현화 행동의 증가를 설명하였다(각각  $\beta=.15, p<.05, \beta=.45, p<.001$ ). 여자 청소년의 경우도 냉담성이 외현화 행동을

설명하였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각각  $\beta=.26, p<.05, \beta=.58, p<.001$ ).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분석에서도(표 5), 남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할수록 규칙위반 행동이 증가하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또한 추가적으로 규칙위반 행동의 증가를 설명하였다(각각  $\beta=.16, p<.05, \beta=.34,$

표 6. 공격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 1단계        |      |         | 2단계                               |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 남자(n=206) |            |      |         |                                   |      |         |
| 냉담성       | .181       | .113 | .112    | .035                              | .103 | .022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57                              | .008 | .455*** |
|           | $R^2=.012$ |      |         | $R^2=.212, \Delta R^2=.199^{***}$ |      |         |
| 여자(n=89)  |            |      |         |                                   |      |         |
| 냉담성       | .356       | .157 | .236*   | .174                              | .139 | .115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67                              | .012 | .519*** |
|           | $R^2=.056$ |      |         | $R^2=.311, \Delta R^2=.255^{***}$ |      |         |

\*  $p<.05, ** p<.01, *** p<.001$

표 7. 외현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 1단계        |      |         | 2단계                               |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 남자(n=206) |            |      |         |                                   |      |         |
| 감정표현결여    | -.573      | .228 | -.173*  | -.360                             | .207 | -.109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90                              | .013 | .445*** |
|           | $R^2=.030$ |      |         | $R^2=.224, \Delta R^2=.194^{***}$ |      |         |
| 여자(n=89)  |            |      |         |                                   |      |         |
| 감정표현결여    | -.643      | .348 | -.194   | -.017                             | .299 | -.005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134                              | .020 | .603*** |
|           | $R^2=.038$ |      |         | $R^2=.366, \Delta R^2=.328^{***}$ |      |         |

\*  $p<.05, ** p<.01, *** p<.001$

$p < .001$ ). 여자 청소년의 경우도 냉담성이 규칙 위반 행동을 설명하였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각각  $\beta = .24, p < .05, \beta = .53, p < .001$ ). 전반적으로 냉담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설명력은 남자보다 여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공격행동에 대한 냉담성의 설명력은

여자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6). 여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할수록 공격행동이 증가하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또한 추가적으로 공격행동의 증가를 설명하였다(각각  $\beta = .24, p < .05, \beta = .52, p < .001$ ). 반면, 남자 청소년은 냉담성이 공격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beta = .11, ns$ ), 자기애적 성격성향만이

표 8. 규칙위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 1단계          |      |         | 2단계                                   |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 남자( $n=206$ ) |              |      |         |                                       |      |         |
| 감정표현결여        | -.282        | .112 | -.173*  | -.203                                 | .107 | -.125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34                                  | .007 | .337*** |
|               | $R^2 = .030$ |      |         | $R^2 = .141, \Delta R^2 = .111^{***}$ |      |         |
| 여자( $n=89$ )  |              |      |         |                                       |      |         |
| 감정표현결여        | -.402        | .180 | -.233*  | -.115                                 | .163 | -.067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61                                  | .011 | .531*** |
|               | $R^2 = .054$ |      |         | $R^2 = .309, \Delta R^2 = .254^{***}$ |      |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9. 공격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 1단계          |      |         | 2단계                                   |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 남자( $n=206$ ) |              |      |         |                                       |      |         |
| 감정표현결여        | -.290        | .142 | -.141*  | -.157                                 | .129 | -.076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56                                  | .008 | .448*** |
|               | $R^2 = .020$ |      |         | $R^2 = .217, \Delta R^2 = .197^{***}$ |      |         |
| 여자( $n=89$ )  |              |      |         |                                       |      |         |
| 감정표현결여        | -.241        | .205 | -.125   | .098                                  | .183 | .051    |
| 자기애적 성격성향     |              |      |         | .072                                  | .012 | .562*** |
|               | $R^2 = .016$ |      |         | $R^2 = .301, \Delta R^2 = .285^{***}$ |      |         |

\* $p < .05$ , \*\* $p < .01$ , \*\*\* $p < .001$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6, p<.001$ ).

다음으로, 감정표현결여와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표 7,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감정표현이 결여될수록 규칙위반 행동이 감소하였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규칙위반 행동이 증가하였다(남자:  $\beta=-.17, p<.05, \beta=.34, p<.001$ ; 여자:  $\beta=-.23, p<.05, \beta=.53, p<.001$ ). 한편, 외현화 행동과 공격행동에 대한 감정표현결여의 설명력은 남자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7, 표 9). 즉, 감정표현결여는 여자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과 공격행동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외현화 및 공격행동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추가적 설명력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라 각각의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CU 특질, 자기애적 성격성향,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여자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비행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YSR의 평균 원점수를 살펴본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남녀

모두 임상 수준에 속하는 점수<sup>2)</sup>를 보였고(남자 25.67, 여자 30.81), 규칙위반 행동에서도 남녀 모두 임상 수준에 속하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남자 13.54, 여자 15.71). 그러나 공격행동의 경우 여자 청소년은 준임상 수준에 가까운 점수(15.10)를 보였지만 남자 청소년은 준임상 수준에 못 미치는 점수(12.13)를 보였다. 즉, 본 연구에 포함된 여자 청소년들은 89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의 문제행동의 수준은 206명의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반사회적 문제나 품행문제에 대해서는 여자에게 가해지는 제지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자의 비행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처럼 여자의 반사회적 문제나 품행문제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의 병리 수준이 남자 청소년보다 심각함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거는 Loeber와 Keenan(1994)이 주장한 ‘성차의 역설(gender paradox)’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차의 역설’이란 특정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 증상의 심각성은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Taylor, Ounsted, 1972). 즉, 여자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문제나 품행문제는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드러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드러나면 증상의 심각성은 남자 청소년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2) 외현화 척도의 경우, 남자는 원점수 22점, 여자는 원점수 20점 이상이면 임상 수준에 해당한다. 규칙위반 척도는 남자 12점, 여자 8점 이상인 경우에, 공격행동 척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 18점 이상인 경우에 임상 수준에 해당하며, 남자와 여자 모두 16점 이상인 경우에는 준임상 수준에 속한다(오경자, 김영아, 2010).

실제로 여자 청소년의 비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병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 방안이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냉담한 기질이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관련이 있었다. Stellwagen과 Kerig (2013)은 CU 특질(callous-unemotionality), 충동성(impulsivity), 자기애적 성격성향(psychopathic narcissism)이 심각한 문제행동 발달과 관련된다 고 하였으며, Lau와 Marsee(2013)는 CU 특질은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비행, 행동조절장애와 관련되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추가적으로 정서조절장애와 관련된다 고 하였다. 결국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공통적으로 비행,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 Barry 등(2003)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CU 특질과 자주 관련된다 고 하였고, 정신병질의 개념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핵심특성으로 간주된다 고 하였다 (Gustafson & Ritzer, 1995). 비록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정신병질과 관련되는 여러 차원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특히 정신병질의 공격성을 예측한다(Cooke, & Michie, 2001; Frick, Bodin, & Barry, 2000). 또한, 어린 시절 품행문제가 발병된 집단에서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과의 관련성이 높은데, 이들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Sprinthall & Collins, 1988).

셋째, CU 특질과 비행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CU 특질의 하위요인

인 부주의/무신경은 비행과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의 연구에서 부주의/무신경이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한 것, 권은정(2011) 연구의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부주의/무신경이 비행문제와 상관이 있었던 것,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 냉담성 및 부주의/무신경 요인이 공격행동,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 상관이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규(2013)의 연구에서는 부주의/무신경 요인이 비행성향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비밀관적인 결과는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비행 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과 Essau 등(2006)의 연구는 일반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재규(2013)의 연구 대상은 본 연구 대상과 유사한 보호관찰대상 남녀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권은정(2011)의 연구는 비행 청소년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연구 대상자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6호 보호관찰 청소년과는 비행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주의/무신경(uncaring) 요인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역채점),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 신경을 쓴다’(역채점) 등의 문항에서 나타나듯이 일의 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세심함 부족과 무성의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문제행동의 수준과 관련되는 반면 보다 극단적인 수준의 비행 집단에서는 비행의 수준과 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비행 청소년 집단의 고유한 특성이 연구 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된다.



넷째, CU 특질과 비행간의 상관에서 냉담성 요인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비행과 상관성이 더 높았고 감정표현결여 요인은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은 상관을 보여 성별에 따라 비행과 관련되는 CU 특질의 하위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죄책감이 결여되고 냉담한 기질이 비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비행 수준이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자 청소년의 냉담한 특성이 높은 수준의 공격적 비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감정표현결여가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자 청소년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할수록 비행이 높아졌는데 이는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 감정표현결여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의 연구에서는 감정표현결여 요인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성격검사(Korean Adolescent Personality Inventory for Self Report)의 불안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과잉활동 및 비행문제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타인에게 감정표현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불안을 잘 느끼고, 주변 환경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차단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행문제로 법적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로 선정된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감정표현을 많이 할수록 비행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범법 행동을 저지르는 남자 비행

청소년들의 주된 문제가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겠다. 요약하면,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여자 청소년의 비행은 CU 특질 중 높은 냉담성과 관련되고, 남자 청소년의 비행은 CU 특질 중 낮은 감정표현결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CU 특질의 하위요인 중 냉담성과 감정표현결여가 공통적으로 남녀의 비행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비행은 냉담성이 더 잘 설명하였고 남자 청소년의 비행은 감정표현결여가 더 잘 설명하였다. 한편,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 각각을 설명하는 요인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감정표현결여가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 모두를 설명한 반면 냉담성은 외현화와 규칙위반만을 설명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냉담성이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 모두를 설명한 반면 감정표현결여는 규칙위반만을 설명하여 성별에 따라 CU 특질의 하위요인이 비행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공격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남자는 감정표현이 많아질 때 공격행동이 증가하지만 여자는 냉담성이 높아질 때 공격행동이 증가하였다. YSR에서 규칙위반과 공격행동 척도를 비교해보면, 규칙위반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의미하며, 공격행동은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도 규칙위반은 사소한 일탈행동을 측정하지만 공격행동은 이보다 심각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공격행동이 준임상 수준에 근접하고 남자 청소년의 공격행동은 그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감정표현과 관련되는 정서적 특성보다는 냉담한 기질이 높은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과가 여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감정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공격행동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에서의 성차에 일부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아동 연구에서 남자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한다고 하였다(Fabes, & Eisenberg, 1992; Maccoby, & Jacklin, 1974; Miller, Danaher, & Forbes, 1986).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여자도 남자보다 부정적인 감정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감정표현이 억제된다(Hagan et al., 1985; Hagan et al., 1987).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표현에 대한 여자 청소년의 소극적인 태도가 감정표현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억제했을 수 있다. 즉,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에 비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남자에 비해 적을 수 있고, 남자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문제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김준호, 김은경, 1995; 김현실, 2002; Rantakalio, Myhrman, & Koiranen, 1995).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비행에 대한 CU 특질의 설명력을 넘어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추가적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CU 특질과 일부 공유하는 특징이 있으나(Lau, & Marsee,

2013) 본 연구에서는 CU 특질이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비행의 일부분을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러한 설명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Lau와 Marsee(2013)의 연구에 기초해볼 때,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CU 특질과 달리 정서조절장애와 관련된다. 이러한 특징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청소년들에게 충동성과 무책임성, 분노와 걱정 같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한다(Vazire, & Funder, 2006).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CU 특질은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되지 않는 개인의 행동 문제와 관련되지만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비행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와 행동조절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Barry 등(2003)의 연구에서도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모두 품행 문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독립적으로 품행문제를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청소년의 정서 반응 및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적 성격성향(psychopathy-linked narcissism)과 공격성과의 관련을 살펴본 Muñoz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적 성격성향(psychopathy-linked narcissism)이 높은 사람은 타인보다 높은 자신만의 지위를 확보하고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산적이고 착취적인 비행 행동을 한다. 이들은 비행 행동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행 행동이 더욱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성의 수준에 따라 자기애적 성격 성향과 관련되는 공격성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정서적 반응성이 낮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관련되고,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CU 특질이 낮은 생리적/정서적 반응성과 관련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Muñoz, Frick, Kimonis, & Aucoin, 2008), 본 연구에서 비행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추가적 설명력이 나타난 것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갖는 정서적 특성 및 정서조절에서의 어려움이 비행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여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여자 집단의 높은 비행수준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비행수준의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여자 집단에서 CU 특질의 하위요인인 감정표현 결여는 외현화 행동과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반면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관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자기애적 성격 성향과 관련되는 정서적 특성보다는 착취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성,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어떠한 기제(underlying mechanism)가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남녀의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들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지역사회 집단의 비행 청소년 및 6호 처분보다 더 높은 처분을 받거나 낮은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낮았던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성비를 보다 균등하게 구성하여 성차를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자료는 비행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비행 문제가 과소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제 3자(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고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행을 설명하는 개인내적 요인들 중에서 CU 특질의 설명력을 넘어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추가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개인의 타고난 CU 특질이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비행은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속성, 가족 및 또래관계 특성, 개인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본 연구는 CU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라는 내적 요인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연구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변인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CU

특질이 어린 시절에 확인되는 기질(Hawes, & Dadds, 2007)인 만큼 초기에 CU 특질을 확인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비행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검증된 바 있는 CU 특질을 평가하고 이러한 특질이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상의 두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성별에 따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은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관련되는 개인내적 요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새로 개정된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는品行문제 진단시에 CU 특질의 동반 여부를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with limited prosocial emotions)’라는 항목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U 특질을品行문제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CU 특질은 개인이品行장애 진단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유의 심각한 행동문제를 초래한다(Frick et al., 2013). 이렇듯 CU 특질이 심각한 행동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과 관련되며 진단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국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CU 특질의 중요성을 재차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Kochanska, Kim, Boldt 와 Yoon(2013) 연구에서는 CU 특질이 높은 아동들에게도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문제행동의 악화를 예방하는 치료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Somech과 Elizur(2012)는 높은 CU 특질을 가진 아동, 청소년이 심각한品行문제를 보이게 되는 독특한 과정을 인식하고 이들의 감정인식 기술 및 공감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개입이 임상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CU 특질로 인해 처벌에 반응하지 않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적 기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Caldwell, Skeem, Salekin, & Van Rybroek, 2006; Dadds, Cauchi, Wimalaweera, Hawes, & Brennan, 2012; White et al., 2013). 또한,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CU 특질이 설명하지 못한 비행의 일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함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 청소년의 저조한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Lau & Marsee, 2013), 이들을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겠다. 특히,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은 여자 비행 청소년들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 청소년의 CU 특질 및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곽희경 (1991). 대학생 나르시즘 성향과 자아정체감 수준과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은정 (2011). 한국판 CU특질 척도의 타당화: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 비교.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 (2010).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K-ICU)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8(2), 1-16.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실 (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4), 492-505.
- 오경자, 김영아 (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주)휴노.
- 오승은, 이승연 (2011). 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2(3), 147-169.
- 이수정, 이혜선 (2006).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18.
- 이재규 (2013). CU 특질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을 중재변인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선 (2005).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 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지진숙 (2013). 비행유무, 냉담-무정서, 우울이 청소년 위험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타순 (2001).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청소년 비행성향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1), 71-86.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rry, T. D., Thompson, A., Barry, C. T., Lochman, J. E., Adler, K., & Hill, K. (2007). The importance of narcissism in predict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moderately to highly aggressive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33, 185-197.
- Barry, C. T., Frick, P. J., & Killian, A. L. (2003). The relation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to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Clinical and Adolescent Psychology*, 32(1), 139-152.
- Barry, C. T., Wallace, M. T., & Guelker, M. D. (2011). Developmental and theoretical influences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youth narcissism. In C. T. Barry, P. K. Kerig, K. Stellwagen, & T. D. Barry (Eds.), *Narcissism and Machiavellianism in youth: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 (pp.71-8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ir, R. J. R., Colledge, E., Murray, L., &

- Mitchell, D. G. V. (2001). A selective impairment in the processing of sad and fearful expression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491-498.
- Burke, J. D., Loeber, R., & Lahey, B. B. (2007). Adolescent conduct disorder and interpersonal callousness as predictors of psychopathy in young adul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334-346.
- Bursik, R. J. Jr., Merten, D., & Schwartz, G. (1985). Appropriate age-related behavior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dult perceptions. *Youth and Society*, 17(2), 115-130.
- Caldwell, M., Skeem, J., Salekin, R., & Van Rybroek, G. (2006). Treatment response of adolescent offenders with psychopathy features: A 2 year follow-up.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3, 571-596.
- Cooke, D. J., & Michie, C. (2001). Refin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wards a hierarchical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3, 171-188.
- Dadds, M. R., Cauchi, A. J., Wimalaweera, S., Hawes, D. J., & Brennan, J. (2012). Outcomes, moderators, and mediators of empathic-emotion recognition training for complex conduct problems in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199, 201-207.
- Emmons, R. A. (1981).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Reports*, 48, 247-250.
-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ssessment*, 13, 454-469.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ren Development*, 63, 116-128.
- Fanti, K. A., Frick, P. J., & Georgiou, S. (2009). Link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to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forms of aggress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 285-298.
- Fisher, L., & Blair, R. J. R. (1998). Cognitive impairment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pathic tendencies in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511-519.
- Frick, P. J. (1998).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Applying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pathy to children. In D. J. Cooke, A. E. Forth, & R. D.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161-187).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 Frick, P. J. (2004).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New Orleans, LA.
- Frick, P. J. (2009). Extend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 youth: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diagnosing, and treating antisocial children and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4(12), 803-812.
- Frick, P. J., Bodin, S. D., & Barry, C. T. (2000). The psychopathy screening device in community and clinic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12, 382-393.
- Frick, P. J., Cornell, A. H., Bodin, S. D., Dane, H. A., Barry, C. T., & Loney, B. R.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developmental

- pathways to severe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9, 246-260.
- Frick, P. J., Lilienfeld, S. O., Ellis, M., Loney, B., Silverthorn, P.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nd psychopathy dimension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83-392.
- Frick, P. J., Ray, J. V., Thornton, L. C., & Kahn, R. E. (2013a). Can callous-unemotional traits enhance the understand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rious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mprehens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doi: 10.1037/a0033076.
- Frick, P. J., Ray, J. V., Thornton, L. C., & Kahn, R. E. (2013b). Annual research review: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pproach to understand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erious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doi: 10.1111/jcpp.12152.
- Frick, P. J., & Viding, E. M. (2009). Antisocial behavior from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1111-1131.
- Gustafson, S. B., & Rizer, D. R. (1995). The dark side of normal: A psychopathy-linked pattern called aberrant self-promo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9, 147-183.
- Hagan, J., Gillis, A. R., & Simpson, J. (1985). The class structure of gender and delinquency: Toward power-control theory of common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151-1178.
- Hagan, J., Simpson, J., & Gillis, A. R. (1987). Class in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788-816.
- Hare, R. D. (1993).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NY: Simon & Schuster (Pocket Books). Paperback published in 1995. Reissued in 1999 by Guilford Press.
- Hawes, D. J., & Dadds, M. R. (2007). Stability and malleabilit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during treatment for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347-355.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imonis, E. R., Frick, P. J., Muñoz, L. C., & Aucoin, K. J. (2007). Can a laboratory measure of emotional processing enhance the statistical prediction of aggression and delinquency in detained adolescents with callous-unemotional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773-785.
- Kochanska, G., Kim, S. H., Boldt, L. J., & Yoon, J. E. (2013). Children's callous-unemotional traits moderate links between their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t preschool age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t early school ag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doi:10.1111/jcpp.12084.
- Kruh, I. P., Frick, P. J., & Clements, C. B. (2005). Historical and personality correlates to the violence patterns of juveniles tried as ad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 69-96.
- Lau, K. S. L., & Marsee, M. A. (2013). Exploring

- narcissism,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in youth: Examination of associations with anti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 1024-1062.
- Lawing, K., Frick, P. J., & Cruise, K. R. (2010). Differences in offending patterns between adolescent sex offenders high or low in callous-unemotional traits. *Psychological Assessment*, 22, 298-305.
- Loeber, R., & Keenan, K. (1994). Interaction between conduct disorder and its comorbid conditions: Effects age and gen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6), 497-523.
- Loney, B. R., Frick, P. J., Clements, C. B, Ellis, M. L., & Kerlin, K.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impulsivity, and emotional processing in adolescents with antisocial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66-80.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69-981.
- McMahon, R. J., Witkiewitz, K., Kotler, J. S.,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0). Predictive validit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measures in early adolescence with respect to multiple antisocial outcom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 752-763.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Muñoz, L. C., Frick, P. J., Kimonis, E. R., & Aucoin, K. J. (2008). Types of aggression, responsiveness to provocation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detaine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5-28.
- Muñoz, L. C., Kimonis, E. R., Frick, P. J., Aucoin, K. J. (2013). Emotional reactivity and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y-linked narcissism and aggression in detained adolescent boy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 473-485.
- Pardini, D. A., Lochman, J. E., & Frick, P. J.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ocial-cognitive processes in adjudicated youth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364-371.
- Rantakalio, P., Myhrman, A., & Koironen, M. (1995). Juvenile offend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sex differenc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0, 113-120.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Terry, H. (199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890-902.
- Ruble, D. N., Boggiano, A. K., Feldman, N. S., & Lobel, J. H. (1980).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self-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05-



- 115.
- Somech, L. Y., & Elizur, Y. (2012). Promoting self-regulation and cooperation in pre-kindergarten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 412-422.
- Sprinthall, N. A., & Collins, W. A. (1988).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 (2nd ed)*. New York: Random House.
- Stellwagen, K. K. & Kerig, P. K. (2013). Dark triad personality traits and theory of mind among school age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 123-127.
- Stevens, D., Charman, T., & Blair, R. J. R. (2001). Recognition of emotio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 201-211.
- Stickle, T. P., Kirkpatrick, N. M., & Brush, L. N. (2009).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ultiple risk-factor models for understanding aggressive behavior in antisocial youth. *Law and Human Behavior*, 33(6), 515-529.
- Taylor, D. C., & Ounsted, C. (1972). The nature gender differences explored through ontogenetic analysis of sex ratios in disease. In C. Ounsted & D. C. Taylor (Eds.), *Gender differences: Their ontogeny and significance* (pp. 215-240).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 Vazire, S., & Funder, D. C. (2006). Impulsivity and the self-defeating behavior of narciss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154-165.
- Waller, R., Gardner, F., Hyde, L. W., Shaw, D. S., Dishion, T. J., & Wilson, M. N. (2012). Do harsh and positive parenting predict parent reports of deceitful-callous behavior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3, 946-953.
- White, S. F., Frick, P. J., Lawing, S. K., & Bauer, D. (201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response to functional family therapy in adolescent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31, 271-285.
- 원고접수일 : 2014. 04.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8. 08.  
게재결정일 : 2014. 08. 21.

## **The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on delinquen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across gender**

**Bo-kyung Song**

**Joo-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on delinquen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A total of 295 adolescents on probation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Narcissistic Personality Criterion, and Youth self-repor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irls showed more delinquent problems and girls' delinquency showed greater correlation with callousness while boys' delinquency showed greater correlation with lack of emotional expression. The CU trait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hen CU trait was controlled, narcissistic personality had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for delinquency and this power was higher in girl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callous-unemotional traits, narcissistic personality, probation, adolescents, delinquency, gender difference